

‘해남 소통넷’ 지역민 소통 창구 역할 ‘톡톡’

하루 평균 900여건 접속...직관적 메뉴 구성 도입 실시간 정보 제공 등 각종 서비스 연계 쉽게 이용

해남군이 개발한 ‘해남소통넷’이 군청과 군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군민 전용 소통 플랫폼인 해남소통넷에 1만7천700여명이 가입한 가운데 하루 평균 900여건의 방문이 이뤄지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30만건이 접속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데는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 구성을 감안해 가장 쉽고 간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뉴 구성을 도입했다.

특히 군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소식을 제공하는 ‘해남소식’에는 주민

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 활동한 사진이나 자유로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우리군민’ 코너, 지역마다 기부자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부소식’ 코너, 부서별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을 탑재해 제공되는 ‘공공앱’ 코너 등을 구성해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소통넷 내에는 해남장난감 도서관 등 8개의 공공앱도 탑재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군민들이 생활 속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군민들이 소통넷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군민 전용 소통 플랫폼 ‘해남소통넷’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소통넷은 혁신적 기술과 군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로 전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등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해남군은 해남소통넷 개발 5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 군민 감사 행사를 갖는다.

5주년 기념 행사에는 해남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 및 기 가입한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행운의 뽑기, SNS 자랑하기 등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며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명령관 해남군수는 “전국 최초, 해남

군민 전용 앱인 해남소통넷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해남소통넷이 군민소통의 창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윤희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국비 확보·현안 사업 해결 ‘동분서주’

기재부 방문, 해양바이오산업 등 내년 역점 사업 국비 지원 건의

신우철 완도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신우철 군수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강운진 경제예산심의관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타당성심사과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신 군수는 경기 집중호우 피해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역 현안 수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예산 통과 ▲광주-완도 고속도로(2단계) 예산 통과 ▲고급 청용-상정 간 도로 시



신우철 완도군수(왼쪽에서 두번째)가 최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완도군 제공)

설 개선 공사 ▲도서관 여객선 운임비 지원 확대 ▲금일 도장항 파체제 축소 공사 등 군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를 찾아 박지원·손영수 국

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등을 피력했다.

신우철 군수는 “국내·외 재정 여건 악화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

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및 역점 사업 예산 통과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전년비 111.5% 증가

올 상반기...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상승

무안군은 17일 “상반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20만6천465명으로 전년 대비 111.5% 증가해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내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1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운항 편수는 562편에서 1천284편으로 증가, 증가율은 128.5%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제주항공의 중국 연길(주 2회), 장가계(주 4회), 진에어의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노선과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오르도스(주 2회) 등 다양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중국 항저우(주 2회), 라오스 비엔티엔, 루앙프라방(4일 간격) 등 정기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베트남 하노이 등 부정기 노선도 다양하게 운항 예정이다.

서명호 미래성장과정은 “중국, 라오스, 몽골 등의 정기노선뿐 아니라 다양한 부정기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라며 “가깝고 편리한 무안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나주시보건소

청소년 생명 존중 뮤지컬 ‘위드미’ 개최

정신건강 교육·상담 등 제공

나주시보건소는 17일 “지난 15-16일 이틀간 금성중학교·봉황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뮤지컬 ‘위드미’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공연은 최근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뮤지컬 ‘위드미’는 학교 방송반에 도

착한 자살 예고로 학생들이 겪는 에피소드를 다양한 노래와 춤으로 구성해 자신의 생명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뮤지컬 ‘위드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보건소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 집



단상담 프로그램,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아동 청소년 전담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우울 상담 및 관련 정보는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339-485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나주=정종환기자

진도군, 탈북민 함께하는 ‘통일 한마음 올림픽’ 개최

20일 군 실내체육관서 바자회·경품 이벤트 등

진도군은 17일 “오는 20일 군 실내체육관에서 탈북민과 함께하는 ‘전국 글로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가 주관하며, 진도군, 진도군의회, 진도경찰서, 각 사회단체, 남우의료재단 전남병원 등이 후원한다.

“지금 진도! 세계는 하나! 탈북민도 함께!”를 슬로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탈북민, 지역 자문위원,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9시 바자회를 시작으로 개회식, 체육행사, 장기 자랑,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행운의 골드바 2점을 증정하고, 대형 TV와 대형 냉장고,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김남중 진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은 “외국인 노동자 120만명 시대를 맞아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휴식·낭만의 여름축제’ 해남 송호해변으로 오세요

해남군은 17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4 송호해변 여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호해수욕장에서 최근 용양제를 시작으로, 개장 기간인 다음 달 18일까지 대형 모래조각 전시회 및 체험, 수상 레저 프로그램, 낭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플라이보드와 해변 보트 체험, 우리가족 모래조각 만들기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

오는 26-28일 사흘간 플라이보드·보트 체험·EDM 공연 등 다채

협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 고 있는 워터슬라이드 등 에어바운스로 조성된 해변놀이터가 8월1일까지 운영된다.

사흘간 오후에 신나는 공연도 펼쳐진다. 오는 27일에는 미스김, 황민우·황민호 등이 출연하는 트롯&EDM 공연이 송호해변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며, 27일에는 지역예술인과 대한민국 대

표 펑크 밴드 ‘크라임넷’의 신명나는 공연에 이어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플라이보드 공연과 시원한 워터락 공연이 3일간 이어지며, 해남의 맛갈난 먹거리로 구성된 낭만캠까지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팡골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송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경을 하기에 적절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팡골마을의 청정 바다에서 낭만과 숨이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남도 대표 휴양지인 송호해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박윤희기자

